

탐방①/화장실 문화를 바꾸는 우수기관을 찾아서(4)

천안시, 찾아오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2001년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천안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다시 찾는 멋있는 도시를 가꾸고 있는 천안시를 방문하여 개선내용을 들어보기로 한다.



천안시 위생과 과장
최 상 호

국토의 중핵도시 천안

천안은 애국충절의 고장이며 삼남분기의 교통요충지로 충남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도청소재지가 아닌 일반시에서는 최초로 전국체전이 내년에 개최되어 「방문하면 기분 좋은 도시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등 체전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대한 역할 분담 충실

작년 8월 초순에 공중 및 다중화장실, 업소용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개선대상 화장실 610개소를 선정하여 업소용 화장실은 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 1개소 1담당 공무원제를 지정하여 관리카드에 의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화장실」선정 사업은 5월말 현재 51개소가 지정되었고,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 음식점 선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도료 30% 감면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지원

시장님(시장 이근영)이 강력한 의지로

▲ 천안시의 '삼거리 공원' 화장실이 단아하게 서 있다.



천안시는 청결하고 기분 좋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주요도로변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공중화장실 및 업소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7월초에 실·과·사업소 경진대회를 통해 그 동안 추진되었던 화장실 개선사업을 점검하고 2차는 야간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확대하여 천안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분 좋은 화장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천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개로 타 시·군에 비교하면 적은 편이지만 단순히 청결한 화장실을 넘어 사용자가 만족하는 화장실로 전면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수화장실에 대한 견학 및 전문가에게 조언 받은 내용의 메모장과 자료사진을 보여주는 환경보호과 이상각 계장은 이미 전문가 수준이었다.

화장실 문화 개선에 어려운 내용은

끝으로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에 어려웠던 점을 묻자, 화장실 관련 법규나 조례등에 실무자들의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실무자들도 비슷한 애로사항으로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 옛스러운 모습으로 개선된 일반음식점 '하늘천따지'의 화장실 밖 풍경이 어느 동동주집인지 아님 어느 회원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임대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현재 41개소에 내부도색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체전 개최를 위해 현재 체육관이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002년에 전철이 천안까지 연장되면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화장실 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에 「기분 좋은 도시 천안」 방문을 자신있게 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